

국경도시 카슈가르를 향하여



그림 1. 호탄의 단결광장. 왼편 끝에 마오와 악수하는 나귀타고간 위구르인 동상.

어떤 의미로 마지막 일정이 시작된다. 카슈가르가 마지막 종착지이니, 오늘이 실제로 마지막 일정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아침에 심한 배탈을 하였다. 온갖 약을 더 먹었다. 그런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심하느라 무진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배탈이 나고 말았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이제 말미라 다행이다. 한 시간을 달리는 것이 어려웠다. 오후에 접어들려 하니 거의 탈진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점심이 그리웠다. 점심이면 쌀 삶은 것이라도 먹을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점심은 시간이 늦어지면서 예정에 없던 예청이란 곳에서 먹게 되었다. 언젠가 먹었던 비빔국수였다. 하늘이 노랬다.

이제 꼼짝없 굴을 수 밖에. 그때 채박사님이 전해주는 청국장 환은 마치 신비의 약초를 구한 것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수니씨께서 누룽지가 있다는데 마치 환상을 보는 듯하였다. 사실 출발 전에 쓸데없이 한국 음식 들고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의존해야 하다니. 어쩔 수 없었다. 다음에도 누룽지는 가지고 갈만 한 것이라 깨달았다.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다.

호탄에서 목욕현 사이에는 논이 넓게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차를 세워달라고 말하기도 귀찮았다. 하루가 빨리 지났으면 하는 생각이 꿈틀거렸다. 목욕현은



그림 2. 시골의 장(목욕현)

장날 같았다. 온 동네가 북적거리고 있다. 역시 양고기 가게가 북적거렸다. 갓 잡은 양고기도 올라왔다. 웬지는 모르겠지만, 양고기(통으로 한 마리) 밑에 그의 머리를 갖다 둔다. 바로 죽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리 불행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비슷한 경관이 이어졌다. 민풍까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어제부터 길을 따라서는 초록빛이 많은 것이다. 사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처음 거절당하였다. 젊은 여인네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물론 문이 닫혀 있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남자가 없다는 뜻이란다. 흙먼지가 쏟아질 듯 날리는 가운데 뽕가를 기름에 볶고 있었다. 할 수없이 집을 나왔다. 잠깐 화장실을 들렀는데, 화장지가 내려가질 않는다. 바람이 불면서 버리는 화장지가 자꾸만 위로 올라오려고 한다. 물론 화장실은 중국 화장실이며, 주유소에 달린 것이다. 한 아이가 안내하는



그림 3. 아주 양호한 화장실

집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 집에는 우리의 툇마루 같은 것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 그런 집을 보았다. 날이 더우니 그런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한단다. 그 집도 역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온갖 야채를 썬 것이 프라이팬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모든 부엌의 지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흙먼지가 날리는데도, 그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마도 차를 끊는 것으로 보이는 주전자는 까맣게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릇마다 흙먼지가 가득해보였다.



그림 4. 점심 준비중!

카스로 향하는 길가에 호두나무 과수원이 넓게 발달하였다. 역시 땅이 귀한 동네라 그 사이에서는 다른 농사를 짓고 있다. 말을 수확하고 나서 옥수수를 심었



그림 5. 화장실, 호두과수원을 다녀온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2년에 3작을 한다고 한다.

점심을 먹을 예정에 당도한 것은 오후 두시가 넘어서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원래 점심 예정지가 아니다. 뭔가 문제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갑자기 들어선 식당이라 시간이 꽤나 걸렸다. 물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나왔지만 그림의 떡이었다. 게다가 양꼬치 구이까지 등장하였다. 그냥 바라만 보았다. 이곳도 광장은 넓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다. 길도 넓지만 차는 거의 없다. 우리 일행들(특히 여자들)은 중요한 것을 본 듯 식당 옆의 가게도 달려갔다. 군것질을 위해서이다.

이제도 카슈가르까지는 255km가 남았다고 한다. 도시를 벗어나자, 우리 일행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노천 화장실을 찾았다. 그녀들을 위하여 대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웠다. 세우고 보니 다행스럽게도 옆에는 호두나무 과수원이 있었다. 예청을 지나 30여 분 만에 만난 마을은 장날인 것 같다. 대 낮인데 온 동네가 난리일 정도로 북적거린다. 마을로 들어갈 때는 모든 당나귀 차가 그 마을을 향하여 달려가더니, 마을을 벗어나니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대 방향에서 그 마을을 향하여 끝없는 당나귀 차 대열이 줄을 잇는다.

저포현을 지나 사차현에 이르니 온 들판이 면화 밭이다. 이제 노란 꽃 분홍 꽃이 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다. 길과 면화 밭 사이에는 역시 사막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은백양나무를 심어놓았다. 과연 살아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대기를 쫓은 것 같지만, 저게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다섯 시를 훌쩍 넘어서 사차현 현성에 들어섰다. 사차는 해발고도 약 1,200m에 있으며 실크로드 서역 남로 상의 중요한 오아시스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 6. 양꼬치 구이



그림 7. 장보는 사람들



그림 8. 사차현 목화밭

사차왕릉에서 왕비묘와 공동묘지만을 둘러보았다. 남자와 여자의 묘는 구별되며, 여자는 4단 남자는 3단이라고 한다. 여자의 사단은 각각 물레와 도마, 밀가루 반죽, 밀대를 의미하며, 남자의 삼단은 땅과 곡식, 연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나는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하였다. 화장실 다녀오느라 일행을 찾느라고 들어간 곳이 이슬람사원이었다. 그곳에서는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였다. 특히 기도 시간에는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 이교도가 기도 시간에 난입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영길사로 향하고 있다. 막 오아시스를 벗어나려고 할 때 기사가 한 건 하였다. 앞에 보이는 산이 카라코람산이라는 것이다. 배탈은 났지만 좋은 곳에 차를 세워 달라 하였다. K2 봉우리와 파미르고원이 이어진다고 한다. 그곳에서 일행은 맛있게 과일을 먹었지만 난 그냥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더욱 입이 바삭바삭 타드는 것 같다. 카라코람 반대편으로는 그저 끝없는 사막이었다. 언덕도 없이 평평한 사막이다. 일을 보기 위해서도 한 참을 그 사막에서 헤매야 할 정도였다.

영길사에 다다르기 전 꽤나 넓은 저수지가 있다. 그 저수지 건너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 저 소나기가 사막에서는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주변의 하천은 범람하고 마르던 초목이 다시 푸른빛을 낼 것이다. 영길사로 가는 길에 아니나 다를까 넘치는 강물을 볼 수 있었다. 영길사는 무슨 절인가 하였더니 동네 이름으로 칼이 유명한 곳이라 한다. 위구르인들이 작은 칼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동네인 것 같다. 곳곳에 칼이 서 있고, 가게가 즐비하다. 무슬림 남자들은 허리에 작은 칼을 차고 다닌



그림 9. 사차 왕비묘



그림 10. 카라코람산



그림 11. 카라코람산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저수지

다. 아마 그게 남자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 같다. 그 칼로 양고기도 찢어 먹고 과일(하미과 같은)도 잘라 먹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영길사에서 카슈가르로 가는 길은 그리 시원치 않았다. 포장도로인긴 하지만 달릴 수 없는 길이였다. 저녁을 위한 식당에 들렀더니 이미 깜깜한 밤이다. 족히 10시는 넘은 것 같지만 그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일정 내내 저녁이 그랬던 것 같다. 아직도 배탈 중인 나는 그 저녁이 반가울리 없었다. 역시 수니씨의 누룽지가 약이 되었다. 지역 여행사 사장(아마도 지점장인 듯)이 찾아왔다. 호텔에서 찾아왔다(그는 와인 한 병을 주고 갔지만, 와인을 좋아하는 나에게 조차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맥주를 마음껏 마시게 한다고 하였지만 그 마음껏은 세병으로 끝을 보았다.

겨우 숙소에서 이른 시간은 12시가 넘었다. 처음으로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밤이었다. 내일은 비행기를 타야하니 짐을 정리해야 한다. 나는 같이 간 딸에게 부탁을 하였다. 짐을 꾸리면서 보니 온통 가방 속이 흙먼지로 가득한 듯하다. 물론 신발도 옷도 모두 흙속에 있는 것 같다.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은 공항에서 벌어졌다. 공항에 들었을 처음 개달았는데, 우리가 위구르인 냄새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가방에서 뭘 꺼내려고 열었더니 그렇게 지겨워하던 위구르 식당에서의 냄새가 그대로 풍겨 나온다.

날이 바뀌었다. 오늘은 우루무치를 경유하여 북경으로 간다. 오전에 청진사와 향비묘, 박물관. 옛거리 등을 들릴 예정이다. 다행스럽게도 배탈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림 12. 영길사의 칼



그림 13. 카슈가르의 일면



그림 14. 카슈가르의 이슬람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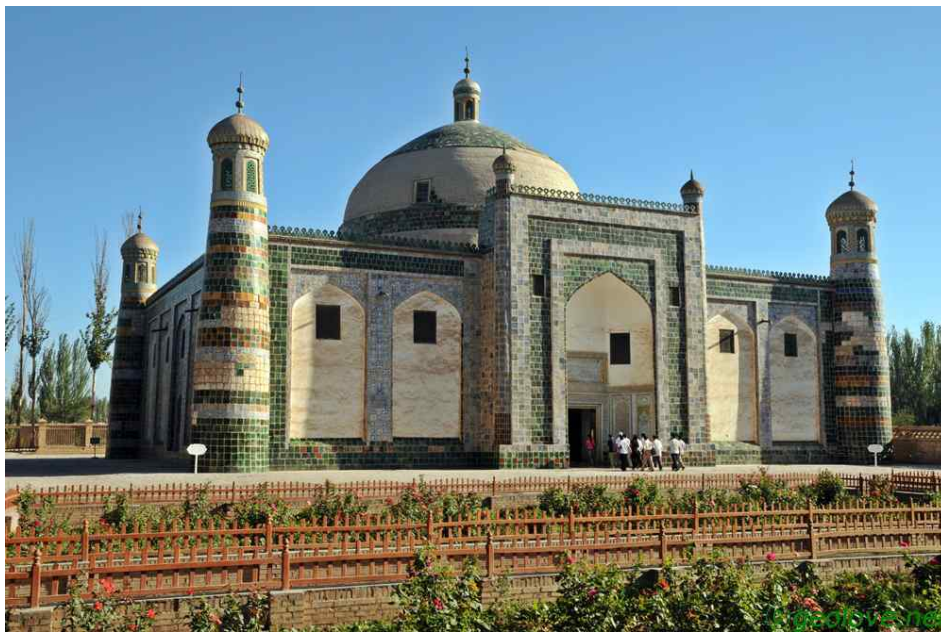


그림 15. 향비묘

카슈가르는 한자로 喀什(카스)라고 부른다. 도시의 인구는 약 25만 4000명(1998)이다. 파미르고원의 북동쪽 기슭에 있다. 주민은 위구르족·한족(漢族)을 비롯하여 총 17개의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위구르족이 75.5%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런지 역시 이 도시에서도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시위를 하고 있다. 마치 숨이 막힐 것 같다. 타림분지 서쪽에 위치하는 오아시스 도시이며, 예로부터 동서 문물의 접촉지,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실크로드의 요지이며, 314번, 315번 국도가 지난다. 텐산남로(天山南路)와 북로가 합류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곳은 카라코람 고속도로(Karakorum highway, KKH)의 시작점이며 파키스탄과의 국경인 쿤자랍 고개를 넘어 이슬

라마바드까지 연결된다. 파키스탄과 연결하는 정기 버스 노선이 있다고 한다. 또한, 키르키스탄으로 가는 길도 있다.

청진사는 썰렁하였다. 그 넓은 광장은 텅 비어 있고, 그 옆에서 공안들이 대모 진압 훈련이 한창이다. 그 광장에 무슬림이 가득차서 기도라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어울릴 것 같다. 게다가 안으로 입장도 불허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시위를 할까봐서 미리 차단하는 것이라 하니 역시 중국답다고나 해야 할 지. 사진 몇 장을 찍고 그곳을 나왔다. 향비묘는 웅장하였다. 샹페이묘[香妃墓] 혹은 '아파휘자묘[阿帕霍加墓]'라고도 한다. 카스 북동쪽 외곽 5km 지점의 하오한촌[浩罕村]에 위치한다. 1640년에 축조된 전형적인 고대 이슬람 양식의 능묘로 아파휘자[阿帕霍加] 5대 72명이 안장되어 있다. 능묘는 전체적으로 위구르족 건축 형태이다. 능묘는 먼러우[门楼], 샤오리바이사[小礼拜寺], 다리바이사[大礼拜寺], 자오정당[教经堂], 주무스[主墓室]로 구성되어 있다. 묘실 안의 벽 사방에는 녹색 유리기와가 붙어 있으며, 기와 표면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후에 들른 박물관은 그야말로 별 것 없었다. 게다가 박물관 자체를 그리 반기지 않는 터라 더욱 그랬다. 혹시 미라라도 있을까 하였지만 지나친 기대였다. 관리인이 사무실(거실처럼 생긴)에 앉아서 버섯이 아침을 먹고 있었으니 별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박물관을 나와 들렀던 고대(高台)라는 옛거리의 박물관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하였다. 입구부터 마치 지난 여름 튀니스의 옛 동네를 거니는 느낌이였다. 길은 좁고, 집은 이층이며 모두 흙벽이다. 튀니스에서와 똑 같은 점이 또 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장사를 하고 있다. 바로 우리를 대상으로. 집에 들어와도 좋다는 집은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였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자기 방까지도 모두 보여 주었다.

이 동네는 옛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다. 생활은 현대이지만 그 들의 터전은 옛이다. 그들의 집 옥상에 올라서 보면 확연하게 옛과 오늘이 보인다. 이 마을 뒤로는 현대식 빌딩이 올라서고 있고, 그 빌딩이 보이는 바로 앞에서는 옥상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



그림 16. 카슈가르의 옛과 오늘



그림 17. 옛거리에서 도자기 굽는 아주머니



그림 18. 카슈가르코 가는 길의 사막